

보도해명자료 (19. 3. 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이며, 정부안은 4월
중에 발표할 계획임 (매일경제 3.1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확정된 바 없음

◇ 기사의 30~35%는 전문가 TF*에서 적정 수준으로 검토**한 결과로,
정부는 동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검토중임

* 에경연, 에기연, 에공단, 한전, 거래소, 건대, 고대 등

**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(2.26., 코엑스)

◇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투자 규모는 태양광, 풍력
등 기술 발전,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
변동 가능함

◇ 3월 18일 매일경제 <“재생에너지 비중 35%로”...과속 논란>
<정부목표 맞추려면 태양광에 320조 필요> 보도에 대해
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~35%로 높이겠다고 제3차 에너지기본
계획 정부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

○ 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7.6%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
2030년 20%로 높이고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

○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.5%, 2035년 11%를
제시한 것에 비해 대폭 상승한 목표치

□ 새 에너지기본계획 세웠지만 목표만 세우고 비용은 나몰라라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◇ 3차 에너지기본계획(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)은 아직
확정된 바 없음

□ 권고안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5~40%에
대해 전문가 T/F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이며 기사처럼 30~35%를
적정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음

□ 정부는 동 전문가 T/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임

* 에경연, 에기연, 에공단, 한전, 거래소, 건대, 고대 등

**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(2.26., 코엑스) 최종 계획을 4월 중 발표 예정임

[참고 :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(2.26, 코엑스) 주요 내용]

(발표1) '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'

-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*과,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
위한 내수시장 확보, ③2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%
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

* '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(수력 제외시) : 28.6%

-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
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,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
요소 등을 고려하여 35%로 설정했다고 밝힘

(발표2)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

○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
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, 유연성
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

○ 이를 위해,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
구축*을 중·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

* 전기, 열, 가스,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, 소비, 거래, 전환, 저장되는
지능형 에너지 시스템

※ 문의 : 에너지혁신정책과 박재영 과장 / 정성훈 사무관(044-203-5130)
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 / 양정식 사무관(044-203-5361)